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

김 창 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가 있습니다.

1~11장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 12~16장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인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의 교훈은 1장 17절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요약할 수 있고,

후반부의 교훈은 12장 1절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생활의 원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의 기본입니다.

사실 지상에는 45억의 인구가 있지만 크게 나눈다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죄에 바

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그 대상이 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바치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세가지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우리의 몸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1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고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가진 재능, 시간,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잠깐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두번째로 시편 17편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마태 복음 25장 14~

30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후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별하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2.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의해 전세의 많은 영 중에서 의로운 영으로 택함을 받아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머무는 곳이며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지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또한 유희를 물리치고 하나님 면전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물론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지렁이”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질그릇”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란 악하고, 더럽고,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질로서의 인생의 가치는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지녔을 때만 그 가치가 귀한 것입니다.

3. 악하고 더러워지기 쉽고 무가치하게 되기 쉬운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강해집니다. 인생이 혼자 있을 때엔 약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접 붙여지면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됩니

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엘리아”가 그러하였고 “에레미야”가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고 요셉 스미스가 그랬습니다.

두번째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악기는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서투른 사람이 연주하면 잡음이 나지만 베토벤이 연주하면 베토벤의 음악이 되고 모차르트가 치면 모차르트의 명곡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누가 그 인생을 연주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아름다움이 결정됩니다. 죄가 인생을 지배하면 더러워지고 의가 인생을 지배하면 거룩해집니다. 병기란 그릇인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물을 넣으면 물그릇이고 밥을 넣으면 밥그릇, 보석을 넣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맡기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나 예수께 바치기만 하면 주님은 의의 그릇으로 크게 쓰십니다.

악하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지금 주님께 바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20세기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온통 시온의 스테이크로 만듭시다.

80년대는 말일성도의 도약의 해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각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루실 시 리딩 자매 별세 전 초등협회 지도자



교회의 어린이 잡지인 **프렌즈**의 편집장이며, 초등협회 본부 회장단의 일원으로 일한 바 있는 루실 시 리딩 자매가 1982년 3월 22일, 유타주 센터빌에 있는 자택에서 72세로 별세했다.

리딩 자매는 초등협회 본부 위원회의 일원으로 1963년에서 1970년까지는 초등협회 본부 회장단의 제2보좌로, 전세계를 여행했다.

리딩 자매는 **프렌즈**가 창간된 1971년 이래 **프렌즈** 편집장으로 부름받아, 사망할 때까지 일했으며, **프렌즈**의 전신인 **칠드르스 프렌즈**의 부편집장으로 일했다.

리딩 자매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봉사했으며 학교 임원회(지방 학교 및 학교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납세자를 대표하는 민선 위원회)의 회장을 역임했고, 아동 메디칼 센터 병원 임원회 및 미국 암 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봉사했다.

리딩 자매의 교회 및 사회 봉사 활동은 널리 인정되어 1980년에 여성 실업가와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유타주 연맹에서 그녀에게 “위민 어브 어치브먼트” 상을 수여했다. *

복음 선교사 봉사 기간 18개월로 단축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청년들의 봉사 기간 단축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선교사 부름을 받은 독신 청년들은 이제 24개월 대신 18개월만 봉사하게 되었다.

교회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청원회를 대표하여 대관장단 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지역 대표와 스테이크 부장단과 감독들을 위한 특별 모임에서 이 변경 사항의 개요를 발표하였다.

현재 교회는 전세계적으로 188개의 선교부에 29,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있으며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19세 이상의 독신 청년이다. 독신 자매 선교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8개월을 봉사하게 된다. 노인 부부 선교사는 개인 사정에 따라 6, 12, 18개월동안 봉사하게 된다.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이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이미 12개월 이상 봉사한 선교사는 해임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상의한다.

- 부름받을 당시의 봉사 기간인 24개월을 봉사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다.

- 18~24개월을 봉사하여 해임되기를 원하는 선교사는 자신의 계획과 선교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해임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선교사들은 18개월의 봉사 기간이 끝나면 해임된다. *

참화를 가져 온 허리케인에 이어 복구를 시작한 통가 성도들

1982년 3월 3일 화요일, 시속 277킬로미터의 폭풍이 대서양을 지나 남서쪽으로 불어 와 통가 왕국을 구성하는 300개 이상의 섬 중 세 개의 주요 섬을 강타했다. 폭풍 정보는 3월 2일에 일찍 발표되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5시가 되어서야 600마일 떨어진 외곽 지대의 조그만 섬들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태풍은 불규칙적인 진로로 최북단에 있는 바바우 군도를 스치고 지나가 중앙에 위치한 하아파이 군도를 때리고 최남단의 통가타푸 군도에서 방향을 바꾸었다.

높은 바람은 많은 섬들을 그냥 지나쳤지만 허리케인은 작은 풍랑을 일으켜서 많은 낮은 지역을 많이 침수시켰다. 높은 바람도 파괴적인 것이었으나 대부분의 피해는 풍랑에 의한 것으로, 정박해 있는 크고 작은 배를 파괴시킨 것이었다. 건물은 바람과 풍랑으로 말미암아 수백 채가 파괴되었다.

약 10만 명의 인구(그 중 25%가 말일성도임) 중에서 생명을 잃은 자가 6명밖에 되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다. 3명은 고



기잡이배와 함께 전복되었다. 그러나 회원 중에서는 아무도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자가 없었다. 통가 성도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였다.

대관장단은 직접 이 소식을 듣고 교회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를 결정하기 위해 유다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를 그곳으로 보냈다.

태풍이 지나간 길에는 약 20개의 말일성도 교회의 건물이 있었다. 몇 개의 건물은 심한 피해를 입어 지붕이 날아가고 창문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기본 골격은 해를 입지 않았다.

주위의 다른 교회 건물이 남작하게 내려앉은 반면에 말일성도 교회들은 비교적 해를 입지 않은 편이었다.

태풍이 계속 그 섬을 강타하자, 말일성도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 건물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섬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건물인 말일성도 교회로 달려갔다.*



부산 스테이크 대회



4월 24~25일 이틀 동안 부산시 수정동에 위치한 제2와드와 마산시 중앙동에 있는 마산 와드에서 1982년도 전반기 부산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부산, 광주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가 감리하였다.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의 신권회를 가졌으며,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성인 모임을 가졌다.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제2와드에서는 부산 지역 성도를 위한 일반 총회가 열렸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마산 와드에서 영남 지역 성도를 위한 제2 총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민 헤기 스테이크 부장은 신권의 중요한 임무 중에 접견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며,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박 병규 부산 선교부장은 신전에 들어

감으로써 얻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교회 152년차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전 결혼을 하고 온 조 용이 형제와 스테이크 상호 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인 홍 추자 자매가 이번 여행을 통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여행 중에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준 교회 회원들과 친척들에게 감사함을 전하였다.

특히 여행 중에 조 용이 형제가 병고에 시달리다가 신권 지도자들의 병자 축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였다. 끝으로 한 인상 장로는 신전 건립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회원들에게 계보사업, 선교 사업을 더욱 열심히 할 것과 가정을 강화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

최 상섭 신경 정신과 의원 개원식 모임

서울 스테이크 천호 지부 지부장단 제1 보좌로 수고하고 있는 최 상섭 형제가 천호 신사 거리에 의원을 개원하였다.

5월 14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이 개원식에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와 한 인상 장로를 비롯하여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 등 많은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개원을 축하하였다. 이 호남 장로는 헌납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의원과 최 형제 가정을 축복하였으며, 의술을 통해 회원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을 주님께 헌납하였다. 전문의로서 마산 국군 통합 병원 정신 신경과 과장을 지낸 바 있는 최 형제는 전남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 이화 여자 대학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 의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진료 과목은 내과, 소아과, 신경 정신과 그리고 피부 비뇨기과 등이다.

가족은 부인인 주 덕희 자매와의 사이에 2남을 두었다. 주 자매는 천호 지부 반주자이다. *



교회 교육 기구 한·일 지역 연수 대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교육 기구 한·일 지역 연수 대회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동 신학 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교육 기구 본부의 슈람 형제 부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일본 지역에서 16명, 한국 지역에서 12명 등 모두 30여 명이 참여하여 한·일 지역 신학 연구원의 당면 문제, 보다 효과적인 교수법 등을 토론하였다. 첫날은 한국 신학 연구원 측에서준비한 특별 가정의 밤을 가졌으며 모든 대회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일본 신학 연구원측은 한국 신학 연구원의 정돈된 건물과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듣고 큰 관심과 부러움을 표시하였다.

현재 일본 신학 연구원은 자체 건물을 갖고 있지 않으며, 동경의 스포야 한 곳에 전세 건물을 쓰고 있고, 다른 곳은 대개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과정은 아주 잘 짜여진 교과 과정과 아울러 유능한 교수팀과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육 기구이다. *

서울 동 신학 연구원 졸업식 및 입학식



서울 동 신학 연구원의 1982년도 제1학기 입학식 및 제11회 졸업식이 3월 6일 신권 지도자 및 재학생 신입생 등 약 2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신학 연구원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도봉 와드의 구 본경 자매 외 20명이 영예의 졸업 증서를 받았으며, 제8와드의 송 인자 자매는 우등상을, 그리고 번동 지부의 김 영철 형제가 공로상을 받았다. 특히 제1와드의 남정현 자매는 6년간 재학중에 한번도 결석을 하지 않아서 특별상을 수상하여 축하의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졸업생과 신입생에게 고 원용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과 최 옥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서 회철 동신학 연구원장이 영적인 권고의 말씀을 했으며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이어서 전통적인 신학 연구원의 떡 파

티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졸업자 명단: 배 숙자, 강 명호, 이 숙, 박 순병, 송 인자, 우 병인, 구 본경, 기 순옥, 고 승효, 최 환선, 김 영철(번동), 한 석현, 박 인희, 박 은경, 정 영숙, 이민순, 김 영철(청운동), 박 기성, 남 정현, 한 영주, 이상 20명 *

동·서 신학 연구원 체육 대회

동·서 신학 연구원 학생들은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청운동 제4와드에 함께 모여 친선 체육 대회를 가졌다.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탁구, 배구, 발야구 그리고 농구 순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동신학 연구원이 우승하였다. 운동 경기기를 모두 마친 동·서 신학원 학생들은 재미있는 오락 시간을 갖고 우정을 나누었다.